금호타이어 채권단 매각 작업 '속도'

이번주 법률 자문사 선정·내달초 매각 타당성 조사 착수 매각가 1조원대…우선협상권 가진 박삼구회장 행보 관심

금호타이어 노사가 9개월간 이어온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정상 가동중인 가운데 금호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 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법 률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제안서 (RFP)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번주에 법률 자문사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앞서 지난 5일 매각 자문사로 외국계 IB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다. 법률 자문사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금호타이어의 매각 자문단이 꾸려지는 셈이다.

채권단은 자문단이 꾸려지면 내달 2일 부터 매각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후 매각 일정은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매각 타당성 조사에서 국내·외에 원매자가 있다는 판단이서면 그대로 매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게 채권단의 생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이 완료 되는 타당성 조사에서 국내외 원매자들 을 접촉해 인수 의사를 알아볼 예정"이 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 지분은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보유한 42.1%로, 채권단은 매각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소 1조원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수전에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대한 예측도 엇갈리고 있다. 매각이 본격화하면 박삼구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인수전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일가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금 호타이어 지분을 팔아 현재 그룹 계열사 가 보유한 소량의 지분 외에는 금호계열 이 지닌 금호타이어 주식은 미미한 상태 다. 박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부사장도 금호타이어 사장으로 오지 않고 지난달 그룹전략경영실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 긴 하지만, 인수를 위해선 1조원 이상의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 는 박 회장으로선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 라는 예측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국내 기업이 나 해외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미 인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서
는 금호고속 때처럼 사모투자펀드(PEF)
를 통해 후일을 도모하는 딜을 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14.22 (-2.14) 금리 (국고채 3년) 1.48% (0.00)

▶ 코스닥 642.31 (-7.83)

▶ 환율 (USD) 1231.10원 (-3.30)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최대 210만원

1월~2월2일 출고 차량 대상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가장 먼 저 개별소비세 환급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중순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 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 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 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 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 아 알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 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 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 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현대기아차가 발 빠르게 개소세 환급에 나서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역민에 받은 사랑 지역에 돌려드립니다"

광역시남구새마을회와 보해양조) 업무협약식 2016. 2, 23.(화) 11:00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회

광주 남구 새마을회 후원금 전달·업무 협약

지역과 나눔 경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 남구 새마을회(회장 김선필)와 후원금 전달 및 업무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보해양조㈜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보해양조 임지 선 대표이사, 최영호 남구청장, 김선필 남구 새마을회장 등 200여명의 내빈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에서 더불어 살 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상호협 력과 신뢰를 바탕으로봉사활동 및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역님들에 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향토기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나눔의 정을 실천하면서 지 역과 협력하고 상생하여 지역민들이 보 해양조에 보내주시는 사랑에 더욱 더 크 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역 새마을 협의회와 있다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주지구JC,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한국농업인광주전남연합회 등 지역 단체와 상호 협력 협약식을 통해 지역 사회와함께하는 '지역사랑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기아차



서구청 복지시설과 업무 협약…사회공헌 강화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은 23 일 광주 서구청에서 지역 사회복지 시설 과 네트워크사업 협약식〈사진〉을 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 강화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임우진 서구청장,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 방철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련 기관 16곳 대표가 참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협약으로 지역 사 회복지시설과 공식적인 협력·교류 채널 을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허브 역 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업으 로는 협약기관들과 함께 만남 워크숍, 힐링캠프 등을 연간 3차례 실시하는 교 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류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복지시 설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사회복지담당 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아차는 기대했다.

또 사회공헌활동에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공헌활동 사업모델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교류프로그램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에 7000만원을 후원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더욱 많은 지역주 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행복한 지역사회 창조에 도움이 됐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동보다 고 말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지 매입사업' 광주·전남 384억 배정

경영위기 농가 논 팔아 부채 갚고 임대 후 재매입 가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농지매입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다. 광주·전남지역에는 384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매입사업에 총 384억원 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 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그 대금으로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계속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분환매 허용, 분할납부 제도변경, 수시납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도 이뤄진다.

일시 환매시 농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원 금액의 50% 이상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분 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초 납입 금액 비율도 총 환매 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추고 임대 기간 이내로 한정했던 기간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3회 이내로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1577-777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성전자·유한양행' 존경받는 기업 $1\cdot 2$ 위

산업계 간부·시민 등 설문

삼성전자,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SK텔 레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등. 한국능 률협회컨설팅(KMAC)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13년 연속 상위 30대 안에 든 기업들이다. KMAC는 지난해 9~12월 산업계 간부진 7천120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 소비자 4천56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는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위 30대(All S→tar) 기업은 150개 후보 기업을, 산업별 1위 기업은 89개 후보 산업을 선정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카카오, 아모레퍼시 픽, 호텔신라,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 스, 신한카드, 현대모비스 등이 새로 상위 30대 기업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